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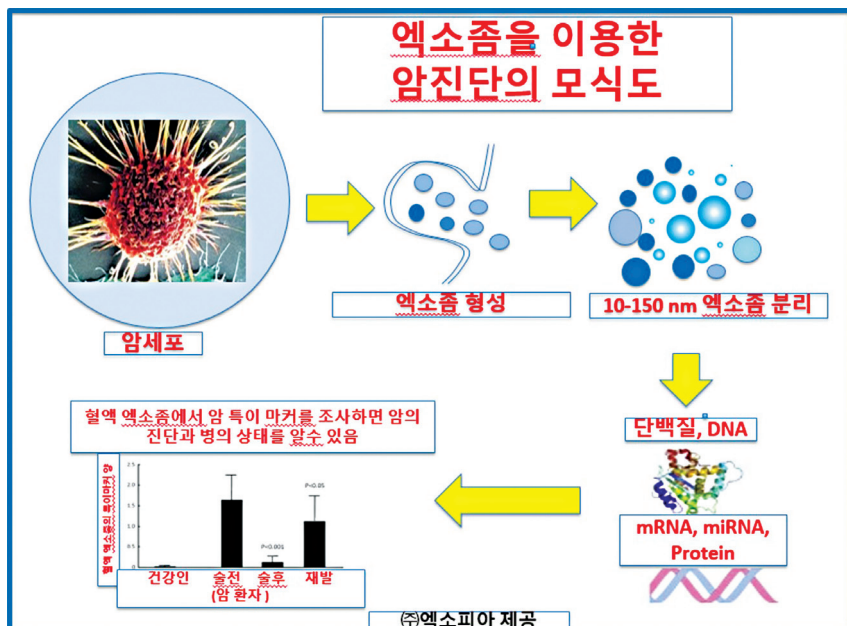
“혈액으로 암 조기발견 기술개발 목표”



“소량의 혈액만으로 암을 조기 진단하면 평균수명과 건강나이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잠재적 암 환자인 저를 비롯해 모든 사람에게 큰 희망이 될 거예요.”

광주시에 본점을 둔 (주)엑소피아(대표 박혜은)는 최근 일본의 (주)아스프레야(대표 구니키 사치에)와 한국인 맞춤형 암 조기발견의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주)엑소피아는 엑소좀을 타깃으로 하는 암 및 질병을 조기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됐다. ‘엑소좀(exosome)’은 세포가 세포 외부로 방출하는 소낭인 EVs(Extra cellular Vesicles)의 일종으로, 세포가 분비하는 지름 50~200nm 크기의 물질이다. 혈액, 소변, 침 등에 있으며, 단백질, 지방, 대사물질, 핵산 등과 같은 생체 유래 물질을 수용 세포로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 특정 세포에서 발현된 단백질이나 RNA는 엑소좀을 통해 다른 세포로 전달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특정 세포의 정보를 다른 세포에 전달하는 일종의 ‘우체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보전달물질 ‘엑소좀’ 타깃 폐암 등 진단 정확도 95~99% (주)아스프레야와 공동개발 협약

(주)엑소피아는 ‘우체부’ 역할을 하는 엑소좀을 이용해 암을 조기 발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소량의 혈액을 통해 각 암에서 생성된 엑소좀에 들어있는 DNA, Micro RNA, 특정 단백질 등을 이용해 MRI나 CT 등에도 나타나지 않는 초기의 암을 발견할 수 있다. 최첨단 암 진단 기술이 개발에 성공한다면 암의 조기발견과 재발 시 조기진단, 치료 가능해진다. 이미 바이오 생명 과학 분야에서 엑소

좀을 통한 기술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엑소좀 및 mRNA 연구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앞서 있다. 향후 노벨상 후보로 불리고 있는 일본의 동경대학의 오지야 다카히로 교수가 주도해 Micro RNA를 이용한 암 진단 연구를 완료했고, 95% 이상의 높은 진단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주)엑소피아는 오지야 다카히로 교수를 기술고문으로 위촉해 향후 1년간 공동개발할 계획이다. 정확도와 정밀도가 높은 최고의 암 진단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주)엑소피아가 특허 및 판매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주)엑소피아의 박혜은 대표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 사망자수 중의 27%가 암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사망 원인 1위였다”며 “엑소좀을 통한 암 조기 진단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우리나라에

서 암 사망률 1위인 폐암을 비롯한 췌장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 난소암 등 8개 암의 진단이 95~99% 정확도로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기술을 통해 암의 조기발견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국가적인 의료비 절감 뿐만 아니라 평균수명 건강나이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엑소피아는 현재 계약을 마치고 시리즈A 투자를 받았다. 또한 전 전남대학교병원장이었던 윤택림 교수가 설립하고 암 면역세포 치료를 위해 세포제조공장을 구축하고 있는 (주)상그리라이오와 협업을 기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박 대표는 “엑소좀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오지야 다카히로 교수와의 공동개발을 하게돼 영광”이라며 “개발과 기술이전 완료되면 국내에서 임상시험 허가를 신청해 재 검증 후 최종 식약처 허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1986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줄곧 의료인으로서 수많은 암 환자를 돌봐왔다. 박 대표는 “현실적으로 조기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암 세포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암 세포는 늦게 발견될수록 치료가 치료 어렵고 생존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힘들게 투병하다 생을 마감한 환자들을 수도 없이 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암 환자들을 봐온 의자의 입장에서 이런 획기적인 진단방법의 개발이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기자

설 차례상,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 7만9,214원 차이...소진공, 제수용품 27개 품목 비교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데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매하는 것이 대형마트보다 약 8만원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 27개 품목을 구매할 경우 설 차례상을 차리는데 드는 비용은 평균 26만2,645원이고 대형마트는 34만1,859원이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23.2% 저렴해 7만9,214원 차이가 났다. 품목 분류별 비율차를 보면 전통시장에서 채소류를 구매할 경우 평균 1만8,016원, 대형마트 3만8,557원이 들어 53.3%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외에도 육류(27.5%), 수산물류(24.3%), 과일류(9.5%) 등의 순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우위를 보였다. 27개 전체 조사품목 중 22개 품목에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 우위를 보이는 품목은 간도라지, 고사리, 숙주, 돼지고기(다짐육), 쇠고기(탕·국용)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설 제수용품 가격과 비교하면 전통시장은 4.3% 상승(25만1,844원)했고, 대형마트는 6.7% 상승(32만2,655원)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수요가 급증해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으며, 닭고기와 계란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 반면 수산물은 정부비축물량 방출과 수입물량 증가로 가격이 다소 안정적이며, 과일류 중 사과와 배는 지난해 연이은 기상 악재로 높아진 가격이 올해 생산 및 저장량이 증가하면서 하락했다. /김혜린 기자

중진공, 해외지사화 참여 증기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은 내달 9일까지 2022년 해외지사화 사업 2차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외지사화사업은 해외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해 수출 및 현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3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참여기업 사업비 60% 내외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중진공, 코트라, 세계한인무역협회(OKTA)가 함께한다. 중진공은 올해 중소·중견기업 400개사를 모집하고 지원한다. 특히 글로벌화 전문 기업을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해 현지 컨설팅, 마케팅

등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전 세계 34개국에서 활동하는 152개사 해외민간네트워크는 기술수출·제휴, 제품·품목별 타겟 진출,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해외특허 및 인증 등 현지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진공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667개사 해외민간네트워크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촉진을 지원해, 73억 달러 규모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사업 참여 신청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문의는 중진공 글로벌사업처로 하면 된다. /김혜린 기자

행복노인전문요양원과의 만남을 환영합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2010년에 설립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요양기관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내 부모님이 편히 쉴 수 있는 집이라는 마음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수년간을 노력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 집과 같이, 내 가족과 같이 항상 곁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 1. 식사, 세면, 양치, 면도 등을 포함하여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맞춤형 또는 전반적인 도움을 드려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2. 의료기관의 연계 및 촉탁의사 방문, 약 복용 관리, 외래병원 관리 및 진료 등 어르신들의 질병 노출 및 예방에 힘을 기울이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 3. 간호처치, 물리치료 및 운동 치료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해드립니다.
- 4. 인지기능 프로그램과 여가프로그램, 개별적인 영양 보호를 위한 영양 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케어에 힘을 약속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에 따라, 신체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 문의. 062) 412-2000



한국예탁결제원 광주지원은 최근 K-Camp광주 제2기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한국예탁결제원 광주지원 제공

예탁결제원 광주지원, 'K-Camp 광주' 제2기 데모데이

한국예탁결제원 광주지원은 최근 혁신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K-Camp광주 제2기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K-Camp 광주 제2기 파트너사 '제피러스랩'과 전문 투자자인 AC·VC 등이 행사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참석한 가운데 참가기업들이 IR 피칭을 실시했다. 참가기업은 모두 9개사로 ▲주알씨케이 ▲주정광스틸 ▲주네오워드 ▲주전주소연료전자 ▲주이산전환환경연구원 ▲주에

이스앤테크 ▲주글로벌케이 ▲주티지산업 ▲에스제이기술(주) 등이다. 데모데이에 참석한 기업들은 AC/VC 등을 통해 추가로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다. 평가결과 우수기업은 오는 3월 개최 예정인 제2회 '한국예탁결제원 K-Camp Final Round'에 참가할 기회가 제공된다. K-Camp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0년부터 진행한 지역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황애란 기자

K-Camp광주 제2기 프로그램은 지난해 6월 전문 액셀러레이터인 '제피러스랩'을 파트너사로 선정하고, 7월에 광주 및 전라지역에서 참가기업 모집·선발 절차를 거쳐 9개사를 선발한 후, 5개월간 기업별 특화멘토링, IR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 결과 4개사가 14억9,000만원에 달하는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6개사는 14명의 신규고용을, 6개사는 56억 8,000만원의 매출실적을, 4개사는 11건의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됐다. /황애란 기자

올해 광주 새 아파트에 1만2,800여 가구 입주

올해 광주지역 입주 아파트가 1만 2,80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수치와 비교해 볼 때 소폭 상승한 물량이다. 23일 광주·전남 부동산플랫폼 사랑방부동산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광주 입주 예정 아파트는 22개 단지 1만2,833 가구(단지 내 오피스텔 세대 포함)로 집계됐다. 지난해 6,520가구에 비해서는 2배 늘었고, 최근 5년간 평균 입주량(1만 200여 가구) 보다는 조금 늘어난 수치다. 단지구별로는 북구가 5,476가구로 가

장 많고, 서구(2,921가구), 광산구(1,746가구), 남구(1,632가구), 동구(1,058가구) 순이다. 사랑방부동산 최현웅 팀장은 “아파트 입주 물량은 통상 2~3년 전 분양할 때 정해진다”면서 “최근 화동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로 아이파크 관련 아파트의 입주일정에 변동성이 커졌지만, 이를 제외하고도 전년보다 올해 총 입주량이 2배 가까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급이 늘면서 집값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로또 6/45(999회)	
당첨번호	1, 3, 9, 14, 18, 28 보너스 34
등위	당첨금액
1등	1,513,274,790원
2등	60,229,843원
3등	1,371,186원
4등	50,000원
5등	5,000원
연금복권720+(회)	
등위	당첨번호
1등	5조 235858
2등	각조 235858
3등	각조 35858
4등	각조 5858
5등	각조 858
6등	각조 58
7등	각조 8
보너스	각조 408032